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영화 속의 대한민국

[발제자] 남정욱 대한민국 영화예술인 공동대표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71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영화는 그 시대의 사회상이다. 1961년에 제작된 ‘오발탄’은 6.25전쟁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의 어두운 사회상을 담고 있다.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곡의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은마는 오지 않는다’와 ‘겨울나그네’는 기지촌의 애환을 그린 영화다. 기지촌은 당시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이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꼬방동네 사람

들'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은 도시화로 재개발이 한창이던 때, 주거지를 잃고 헤매는 도시 빈민의 출구 없는 삶을 다루었다. 이와 같이 영화는 시대변화에 따라 그 시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대한민국의 영화는 성취보다는 성취 속에 가려진 어두운 면을 부각해 사회의 '역린'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영화는 관객의 정신세계에 사회와 국가의 부정적 이미지를 조금씩 스며들게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인 면을 투영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의 진실보다 픽션화로 사실과 다르게 각색된 영화의 스토리가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청소년기에 한번 굳어진 역사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영화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이유이다.

◆ 영화 속 대한민국

- ◆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 중 하나인 '오발탄'은 1961년 작품으로 6.25 전쟁 후 모습을 그린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제정신이 아닌 어머니와 상이군인으로 제대하여 은행을 털다 붙잡힌 남동생, 양공주가 된 여동생, 학업을 포기하고 신문배달을 하는 막내동생을 거느린 집안의 가장인 계리사인 주인공, 이들은 전쟁 후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오발탄'처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신세다. '오발탄'에는 전쟁 후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시대상황이 표현되어있다.
- ◆ '겨울나그네'와 '은마는 오지 않는다'는 기지촌을 배경으로 한다. '은마는 오지 않는다'는 미군에게 겁간당한 이후 주위의 멸시와 따돌림으로 살길이 막막해진 주인공이 결국 미군 부대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으로 들어가 양공주로 일하게 되는 6.25전쟁 당시 상황을 그렸다. 전쟁 이후에도 미군 기지 주변으로 형성된 기지촌은 1990년대까지도 남아있었다. 기지촌은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불편하면서도 덧대어 사는 사람이 많았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시대가 낳은 삶의 현장이었다.
- ◆ '꼬방동네 사람들'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은 1980년경 급격한 도시화 풍경을 그린 영화다. 산업화로 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되지만 아파트로 이사 갈 여력이 없는 빈민층은 삶의 터전인 판자촌에서 마저 쫓겨나게 된다. 아무리 일해도 빈곤을 탈출할 출구가 없었던 당시 도시 극빈층의 삶을 보여준다.
- ◆ 도시빈민 중에서도 여성들의 삶은 더 고단하다.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자는 온갖 수모를 당하며 직장을 전전한다. 그러다가 만원버스의 사람들을 밀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되고 한 쪽 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그 후 살길이 막막해진 영자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창녀가 된다. 창녀가 최후의 보루였다. 또 다른 영화 '창'은 시골에서 상경한 여성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 영화의 개봉시기는 20년의 간격을 두고 있으나 동일한 주제다. 이는 강제적으로 몸을 팔게 된 여성들이 사회의 한 구석, 오랜 기간 존재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 ◆ ‘바보선언’은 1984년도 작품으로, 당시 이장호 감독이 적은 액수의 제작비로 제작한 영화이다. 감독은 영화를 망칠 생각으로 일부러 정상적인 방법과 반대로 제작했다고 한다. ‘아무렇게나주의’가 만든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연출로 걸작이 탄생했다.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되던 한국 사회에서 물질만능주의, 졸부들의 이면을 보여주며 사회를 풍자했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가감없이 영화에 담은 작품들도 있다. ‘바보들의 행진’과 ‘그들은 태양을 쏘았다.’가 그 예이다.
- ◆ 사회의 어두운 면만 영화화된 것은 아니다. ‘수학여행’은 1969년도 작품으로 유쾌하고 발랄한 영화다. 대한민국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수학여행에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오발탄과 동일한 감독의 작품으로 전쟁 후 어두운 사회상을 그렸던 오발탄과 달리 밝은 영화였다. 영화는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쟁 직후의 시대상과 개발시대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초기 영화들은 패배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는 사회고발성이 많았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영화도 사회 변화상에 맞추어 점차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다루는 작품들이 등장했다.
- ◆ 2014년에 개봉한 ‘국제시장’은 1950년대 6.25 이후부터 현재까지 격동적인 시대상황을 보여준다. 파란만장한 시대변화과정에서 주인공의 애환을 그린 영화이다. 주인공 ‘덕수’가 흥남철수, 파독 광부, 베트남 전쟁 등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개인도 나라도 성장하는 모습을 그렸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시장’을 우파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시장’은 우파의 가치보다도 처한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개인의 의지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흥행한 것이다.
- ◆ ‘부산행’은 2016년에 개봉하여 1,1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 작품은 노골적인 반 대한민국적 작품으로 현재부터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군부대가 좀비가 되면서 군인들이 민간인을 죽이는 장면은 5.18을 생각나게 한다. 부산을 향하던 기차가 동대구역에서 탈선하는데 동대구역은 박정희의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대한민국이 탈선하기 시작한 것이 박정희의 5.16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정이다. 최후의 생존자 둘이 터널을 걸어 나올 때 나오는 노래는 하와이 왕국의 알로하오에라는 곡이다. 생뚱맞은 설정이나 이는 하와이로 망명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암시한다. 대한민국이 이승만, 5.16, 5.18을 거쳐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사람들 즉, 소외된 사람들로 넘쳐나는 좀비국가가 되었다는 설정이다. 소외된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부유하는 질곡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압축시켜놓은 작품이다.

◆ 왜곡된 영화 속 역사와 정신

- ◆ 많은 역사들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픽션화된 소설과 영화로 대체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읽거나 보게 되면서 그것이 사실이나 정설처럼 각색되고 비슷한 관점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된다. 영화 ‘화려한 휴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화려한 휴가’에 연이어 ‘26년’, ‘아들의 이름으로’가 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역사가 한번 굳어지면 이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영화와 같은 매체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스며들면서 사실과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 ◆ 좌파에서 6.25전쟁과 폐허위에서 대한민국을 건설한 이승만을 깎아 내리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방법이 임진왜란 시기의 선조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것이다. 선조를 최악의 왕으로 묘사하는 것이 좌파 역사학자들의 목표였고 최종 타깃은 이승만이였다. 역사와 문화가 교육과 묶여 한꺼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성취는 감추고 대신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새롭게 해석하여 ‘역린’을 만들어냈다. 어느 나라나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역린’이 있다. 대한민국 우파는 이를 다 뺐겼다. 좌파가 만든 ‘역린’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거나 다른 의견을 보이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다.

◆ 대한민국 영화의 산업화와 발전 과제

- ◆ 대한민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바탕에는 영화의 산업화가 있다. 강제규 감독은 영화에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 영화를 산업화했다. 영화 산업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쉬리’와 ‘태극기 휘날리며’를 제작한 강제규 감독은 2억 5천만 원짜리 영화를 제작하던 시기, 25억 원 규모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제작비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본투자가 활발해지고 극장 관객이 증가했다. 영화 시장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 영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 ◆ 영화의 내용은 수요자가 만든다. 영화를 보는 주 수요층이 우파의 가치를 우선 시하는 세대라면 이에 부응한 영화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의 주 고객이 2030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좌파의 가치를 가진 50대의 영화 수요가 증가하면 그들의 정서에 맞는 영화가 생산될 것이다. 영화의 콘텐츠는 영화의 수요자가 결정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